

기억이 녹아든 장소 소금공장의

부안 예술공방

황남인, 김시홍
내러티브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42-5(매산길3-1)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80.43m ²
건축면적	314.33m ²
연면적	471.77m ²
규모	지상 2층
높이	9m
건폐율	65.42%
용적률	98.19%
구조	철골구조
구조설계	SDM 구조기술사사무소
설계	황남인, 김시홍
설계담당	황남인, 김시홍
시공	삼호토건주식회사
기계·전기설계	서인엠이씨, 아이에코 ENG
설계기간	2021. 7. ~ 2021. 12.
시공기간	2022. 3. ~ 2022. 12.
공사비	약 11억 원
건축주	부안군청



상공에서 바라본 부안 예술공방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건물은 원주민이 이용해야 하고,
그래야 지속될 수 있다. 마을의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을 이어가며 공공의 공간으로 관계를 연결해 가는 것이
부안 예술공방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부산 예술공방 전경



남측을 향해 열린 아트리움



두 개 층이 열린 내부 공간



FRZO ©



FRZO ©

상 1층 로비
하 아트리움을 가로지르는 금속 플레이트의 계단



0210



0211

상 주출입구
하 골목을 향해 길게 뻗어 나간 오버행



외부 테라스

기존에 있던 소금공장은 박공의 지붕과 금속재료의 표현을 통해 이 장소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박공 매스 아래의 공간은 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모여 앉을수 있는 작은 평상과 같은 일상의 매개 공간이 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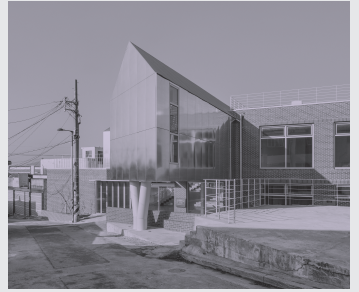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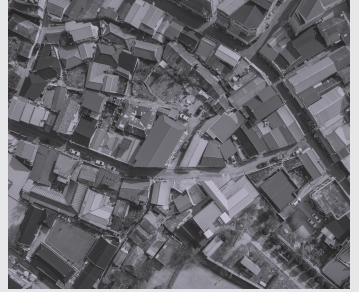
© 신경서

소금공장과 부안상설시장

부안상설시장 인근의 원도심에 위치한 부안소금공장은 민족 고유의 제염법으로 재제염을 생산하던 공장이었다. 수산업이 발달한 부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장 인근의 소금공장은 지난 2009년 운영이 중단된 후 폐허로 남아 있었다. 부안소금공장의 빛바랜 간판과 함석판으로 된 큰 문이 장소의 성격을 말해 주고 있었다.

부안 예술공방은 이 소금공장이 있던 자리에 계획되었다. 구도심의 필지가 대개 그렇듯이 길에 면하는 좁은 입구에 안으로 깊은 비정형을 띠고 있었다. 대지 가장 안쪽에는 원료가 되는 소금을 녹여 침전하고, 입구 가까이 있는 넓은 화로에 평평한 솥을 두고 물을 끓여 소금을 채취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가는 좁은 골목, 그리고 건물 사이의 틈-1미터 미만은 틈이라고 부르자-을 비집고 들어가면 나오는 무허가 주택들. 평평한 솥 주위에 둘러앉아 소금에 조개를 묻어 구워 먹은 흔적들과 남겨진 소금 포대들. 마을 사랑방 밖으로 어지러이 놓인 신발들과 곳곳의 점집에서 풍기는 향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기이한 형태의 필지는 서로 벽을 공유하며 얽혀 있던 이곳의 건물들처럼,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동네의 이야기를 마구 섞어 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몸을 뉘어야 하는 공공건축물이 가져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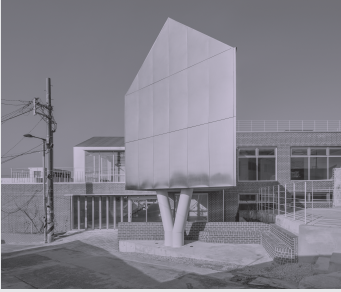


상 상공에서 바라본 부안 예술공방
하 골목을 향해 길게 뻗어 나간 오버행



옛 소금공장의 모습

©내셔널아키텍처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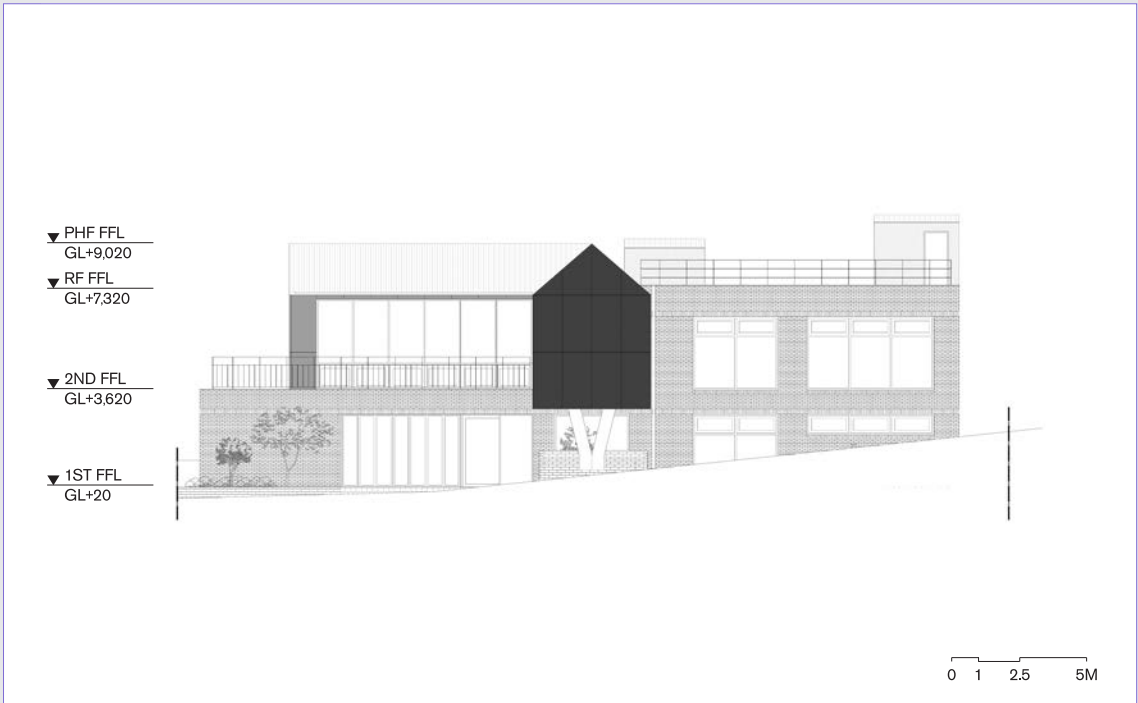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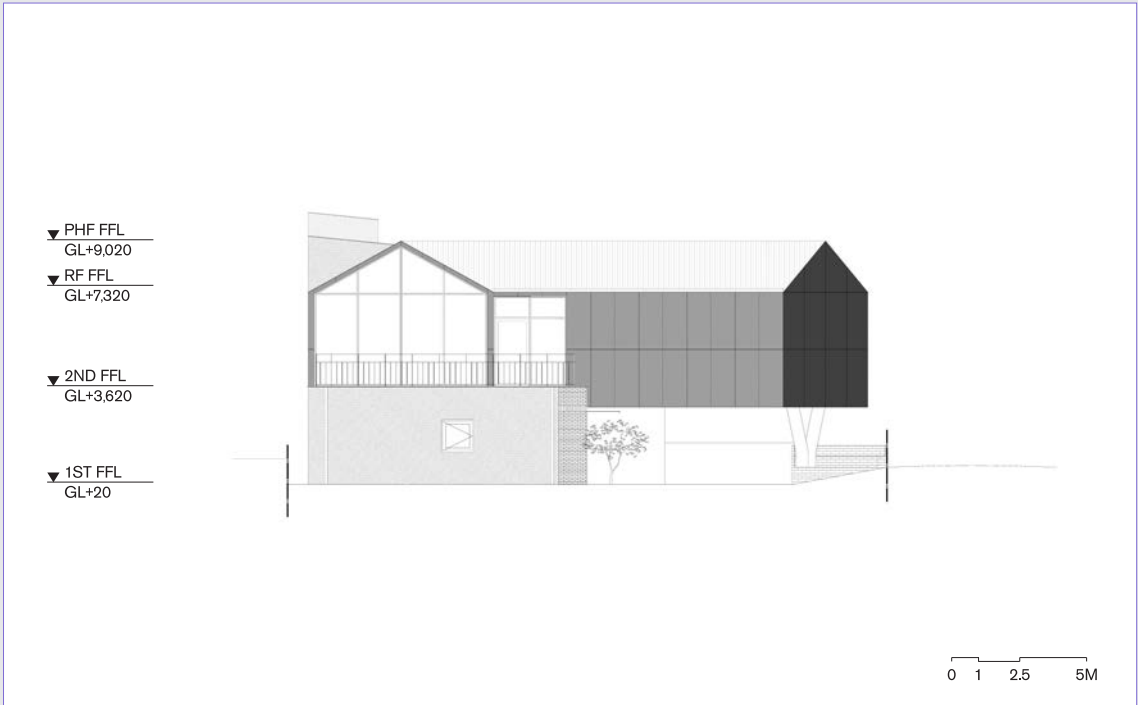
상 부안 예술공방 전경
하 남측을 향해 열린 아트리움

장소의 풍경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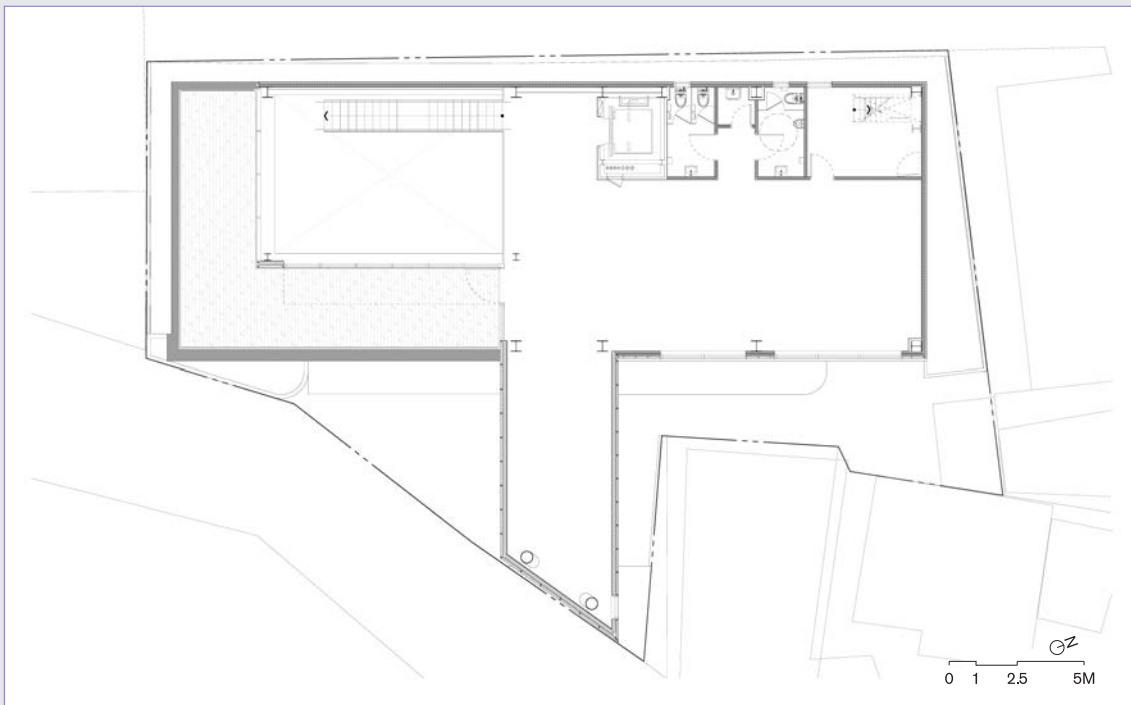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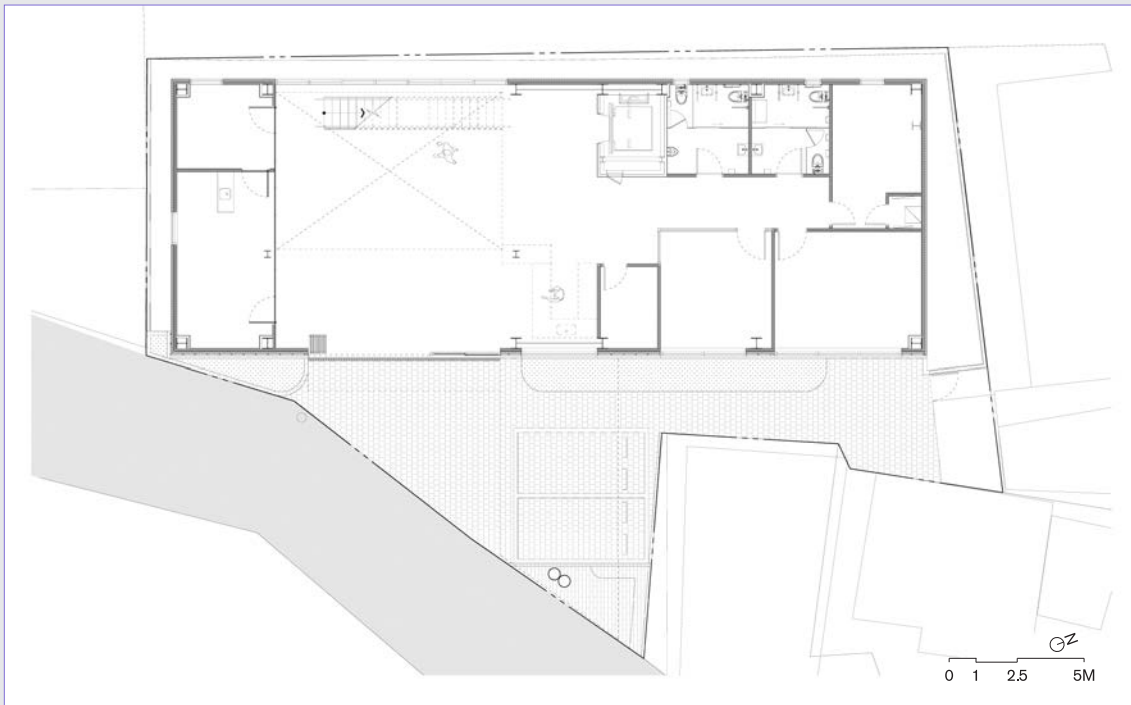
상설시장에서 골목을 따라 이곳으로 걸어들 때, 마치 원래 있던 건물인 양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를 원하였다. 매화 풍류마을이란 이름의 이 장소는 부안군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었다. 부안상설시장과 연결된 소금공장 전면의 도로는 문화거리로 조성될 예정이고, 지금은 이 길을 따라 역술원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데, 우리의 필지 남측에도 한 동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금공장의 북측으로는 1미터가 채 안 되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있었다. 처음 현장을 방문한 날에도 문 안으로 여러 켤레의 신발이 보였고, 지나가다 만난 한 어르신은 “우리의 놀이방이니 최대한 늦게 철거해 달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기이한 형태의 이 필지는 어느 도면과도 일치하지 않는 비정형의 건물들처럼,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동네의 이야기를 마구 섞인 채로 담고 있었다.

일상이 지속되는 열린 공간

이 자리에 세워질 부안 예술공방이 주변과 비슷한 높이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가렛방 앞에 걸터앉듯이 첩퍼덕 앉을 수 있는 곳이기를 원하였다. 건물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환영받고, 보호받기를 바랐다. 이에 따라 좁은 입구를 과감히 비워 골목이 확장된 작은 마당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후면의 무허가 주택으로 향하는, 이제는 틈이 아닌 골목이 연결된다. 둔탁한 매지의 적벽돌을 적용한 1층은 저층의 오래된 주택가의 연장이며, 뒤로 물러난 매스가 만드는 공간은 대지 뒤편 주택에 대한 배려이자 마을 골목길의 연장이 된다. 경사에 대응하는 모서리의 작은 땅은 도로 레벨에 맞추어 시장을 오가는 노인분들이 잠시 걸터앉아 쉴 수 있는 벤치로 조성하였다. 이곳은 나지막한 필로티로 위요된다.



상 남측 입면도
하 동측 입면도



상 1층 평면도
하 2층 평면도

장소의 기억을 담는 공간

골목을 향해 길게 뻗어 나간 오버행은 1층의 매스와 수직으로 교차하며 행인을 맞이하는 감싸는 듯한 외벽을 만든다. 필로티 하부와 1층 외벽, 주변 대지와 경사가 만드는 얇은 옹벽은 뒤편 주택으로 향하는 작은 관문이 된다. 박공지붕과 반사도가 높은 금속 외장재는 소금공장을 모티브로 하여, 상설시장을 향해 강한 인지성을 가진다. 1층의 좁은 골목에 여유를 확보하며 건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매스를 떠받치는 Y자 기둥은 긴장감을 형성하며 필로티 하부에 자유로운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시장 입구에서부터 대지 북측에 유희공간에 이르기까지 4개의 레벨에 걸쳐 시선이 통하도록 한다. 마당과 연결되는 1층 로비에서부터 1·2층 내부의 아트리움, 2층 테라스가 시작적으로 연결되면서 건물 안과 밖의 활동이 상호 작용하도록 한다. 아트리움에는 남측을 향해 활짝 열린 박공의 창을 통해 깊은 필지를 극복하는 풍부한 자연광이 쏟아진다. 금속 플레이트로 제작된 계단은 아트리움을 가로지르며 마당과 로비, 내부 공간과 외부 테라스로 이어지는 자유로운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두 개 층이 열린 내부 공간은 철골 구조가 그대로 노출된 공장 건물의 유형을 가진다. 각 실의 구성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배치를 가지며, 은색의 테크플레이트가 그대로 노출된 천장은 조명을 반사하는 역전된 소금 가마솥이다. 1층의 구획을 가볍게 나누는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는 사무실 내부로 자연광을 유입한다. 천장을 통해 주변으로 반사된 빛과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구성된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서의 소금공장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가공된 소금을 담은 소금 포대들이 오랜 시간 공장 내부에 방치된 채 쌓여 있어서 몇 장 챙겨 두었다.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이 될 현재의 흔적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쓰레기와 먼지에 덮인 상태였지만 가볍고 질긴 소재의 특성을 살려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해 보였으며, 원색의 로고와 타이포 역시 매력적이었다. 그중 일부를 깨끗이 세척한 후 예술공방 내부에서 사용할 티테이블로 재구성하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한 프레임 위에 적당한 크기로 로고가 잘 보이게 소금 포대를 접어 올려놓은 후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두 장을 교차하여 그 위에 덮어 간단히 고정하였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소금공장의 기억과 납작한 솔에 맺힌 소금 결정을 떠올릴 수



상 두 개 층이 열린 내부 공간
 중 1층 로비
 하 아트리움을 가로지르는 금속 플레이트의 계단



상 외부 테라스
하 골목을 향해 길게 뻗어 나간 오버행

있는 오브제가 될 것이다.

시공이 끝나갈 무렵, 입구 한쪽을 차지하던 작은 집이 헐리게 되어 숨겨져 있던 건물의 2층 부분이 골목길로 드러났다. 비정형의 필지 때문에 이리저리 꼬이던 매스와 주변 건물이 만나 아늑한 마당이 생겼다. 그리고 1년 후 대지 북측의 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길이 조성되면서 예기치 못하게 건물의 북 측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우연히 생겨난 마당은 고추를 말리는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부안 예술공방으로 보는 도시재생

구도심이라면 으레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젊은이들이 동네를 부흥시키기를 바라고 펼쳐지지만, 그 과정에서 그 동네에 거주하던 고령의 주민들은 자주 소외되곤 한다. 주민들의 공간에 들어선 ‘힙’한 장소들은 막상 그곳에 사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행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 원상태의 침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건물은 원주민이 이용해야 하고, 그래야 지속될 수 있다.

마을의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을 이어가며 공공의 공간으로 관계를 연결해 가는 것이 부안 예술공방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기존에 있던 소금공장은 박공의 지붕과 금속재료의 표현을 통해 이 장소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박공 매스 아래의 공간은 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작은 평상과 같은 일상의 매개 공간이 되고 있었다. 부안 소금공장과 상설시장이 지닌 장소에 대한 일상의 기억을 지속하면서 동네 어르신과 젊은 창업가들이 이용하는 마을 공방, 지역의 예술가들을 포용하는 예술 공방, 부안 소금공장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체험과 상품으로 젊은이들의 발길을 유도하는, 이 모든 것이 섞인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혼합물 같은 이 부안 예술공방 프로젝트가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